

치 사

석종사 템플스테이 명상센터 선림원 낙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더위를 식히는 선선한 바람과 같이, 현재를 정진하며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불제자들에게 시원한 소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불자와 국민을 위하겠다는 원력의 발로이자 종단이 고민하는 미래에 대한 실천이며, 이 자리에 계신 불자님들의 성실한 마음이 더하였기에 종단적으로도 치하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는 혜국스님께서 일생동안 종단과 불자에 대해 근념하신 결실이고, 다시 앞날의 더 나은 결실을 위한 알찬 씨앗이라 할 것입니다. 스님은 쉼 없는 용맹정진 속에서도 후학지도와 젊은 불자에 대한 애정을 무엇보다 우선하셨고, 후학과 불자의 감화를 당신의 제일 큰 성취로 삼으셨으니, 우리 승단의 수승한 모범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긴 오늘의 회향은 이 지역은 물론 종단이 나아가고자 하는 발원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불어 21세기 문명을 이끌어갈 대안사상으로서의 간화선과 수좌스님들의 여념없는 성취가 현대인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는 훌륭한 기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과거와 미래를,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능과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현 사회는 경쟁과 소외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려한 자연과 더불어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정신문화를 꽃피운 사찰에서 많은 이들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회향의 커다란 의미라 할 것입니다.

이는 석종사만의 불사가 아니며 종단의 대작이며 불교의 성취입니다. 나아가 지역사회는 물론 현시대의 사람마다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있는 한걸음은 한국불교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모습이자, 미래입니다. 더불어 국민의 행복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 종단의 원력과 서원을 이루어가는 구체적 실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석종사 선림원 낙성은 힘겨워 하는 현대인들에게 마음까지 나누는 정신의 삶으로 안내하고,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뜻 깊은 수확입니다. 마음까지 나누어 삶의 존재로서 행복을 깨닫게 하는 진실한 손길이 모두의 공덕으로 넓게 퍼지기를 청명한 기운으로 기원합니다.

종단이 나아가는 향방을 십분 이해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 의미있는 결실을 성취해 가시는 혜국스님의 진력에 공경을 드리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관공서 관계자와 불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의 원력과 실천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정진이 얼마나 향기롭고 소중한 가치인지 널리 알려지고 모두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8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